국어 대명사의 체계화 재고*

서종학** · 김수정***

〈차 례〉

1. 서론
2. 대명사의 특성
3. 대명사 체계
4. 결론

【국문초록】

대명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검토한 후, 대명사의 속성과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기존의 대명사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대명사의 속성을 형태, 통사, 의미 면에서 검토해 세 가지로 제안한다. 그 중에서 특기할 것은 대용·화시·범용 등이다. 첫째는 '대용성'으로서, 문맥이나 화맥에 선행어가 노출된 경우 또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공유된 상념 속에서 그 지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화시성'은 전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0).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형적인 발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발화 위치에 의해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대상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화시성’과 관련하여 대명사는 ‘나’에 대응하는 ‘너’가 존재하는 ‘상호적 화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특수 계층의 일부 사람 혹은 사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발화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상에 사용되는 ‘범용성’이라는 속성을 대명사는 가지고 있다. 대명사의 이러한 속성을 띠지 못하는 단어들과 형태·통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어휘들을 조심스럽게 대명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대명사의 분류 또는 체계와 관련하여, ‘인칭’은 담화상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화자는 1인칭, 청자는 2인칭, 화자와 청자를 제외하고 담화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물은 3인칭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체계화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대명사는 ‘화시성을 지닌 특정한 대상이나 이름을 대신하여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대명사, 대용성, 화시성, 상호적 화시성, 범용성, 대명사의 체계

1. 서론

1.1. 목적과 방법

이 논문의 목적은 대명사의 개념과 속성에 비추어 기존에 대명사로 분류된 어휘들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명사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다.[1)]

1) 이 논문은 대명사의 독립 품사 설정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문법서들을 보면, 문법서마다 대명사 체계와 대명사로 분류된 어휘들이 상당히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다르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대명사 체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과 합리적인 문법 체계 수립을 위하여 현대 한국어 대명사의 체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다양한 대명사 체계를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명사 속성을 검토하여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대명사의 속성만으로는 대명사 어휘를 분류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대명사의 속성을 수립해 보았다. 그리고 대명사의 속성에 근거하여 대명사로 분류되었던 개별 단어들을 검증해 보았다. 이에 개별 단어들을 검증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어휘들은 대명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남은 어휘들을 중심으로 현행 대명사 체계를 검토한 후 새로운 대명사 체계를 수립해 보고자 한다.

1.2. 문제 제기와 필요성

대명사와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대명사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대명사로 분류된 어휘들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대명사의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2)]

첫 번째 검토 사항인 대명사의 개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매우

2) 김수정·서종학(2012)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명사의 개념 및 분류 체계 역시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어 대명사에 대한 혼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부정확하고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국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에서 대명사에 대한 정의는 대동소이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대명사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둘째는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전자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고영근 · 구본관 2008:69)로 대표되고,[3] 후자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만 가리키기만 하는 품사"(남기심 · 고영근 2011:74)로 대표된다.[4]

---

3) 다음은 이러한 정의로 분류된다.
(ㄱ) 대명사는 글자 그대로 명사 또는 명사구 대신에 쓰는 어휘 범주이다.(서정수 1996:491)
(ㄴ) 대명사는 명사가 쓰일 자리에 대신하여 쓰인다.(고성환 외 2005:88)
(ㄷ)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 및 수량을 대신하는 단어이다.(쉬앤 떠우 2006:73)
(ㄹ) 사람, 장소, 사건의 내용 등을 대신하여 쓰이는 단어들의 묶음을 뜻하는 것이다.(박덕유 2009:224)
(ㅁ)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하여 쓰이는 말이다.(임지룡 외 2010:119)
(ㅂ)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신승용 2011:197)

4) 다음은 이러한 정의에 해당한다.
(ㄱ) 모든 일몬을 다만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씨이다.(최현배 1972:226)
(ㄴ) 언어적 화맥 및 비언어적 화맥에 주어진 대상을 언급하기 위해 쓰이는 명사임을 의미한다.(김정아 1984:1)
(ㄷ) 대명사는 대신 두루 가리키는 말로 역할 지시의 상황지시성과 대용성에 의해 그 지시 대상을 한정하는 범주(김미형 1990, 1997)
(ㄹ) 대명사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의 부류이다.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의 대리자이며 지적이다.(손문경 1992:59)
(ㅁ) 대상을 이름을 찍어 나타내지 않고 가리켜서 나타내는 단어이다.(김동찬 2002:56)
아래의 정의는 전 · 후자의 내용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ㄱ) 특정한 대상의 이름(명사)을 대신하여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체언(나찬연 2007:136)
(ㄴ) 명사를 대신하여 지시하는 말이다.(이관규 2003:130)

(1) ㄱ. 혁이가 제대하고 학교로 복학했다. 그가 돌아오자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ㄴ. 내가 할게. 너는 쉬도록 해.
ㄷ. 김만중에 대한 책을 읽었다. 서포는 어머니를 위해 구운몽을 창작했다.

(1ㄱ)에서 대명사 '그'는 선행하는 명사 '혁이'를 대신한다. 이 경우 대명사 '그'의 선행사는 문장에 명시되어 있다. (1ㄴ)에서 대명사 '나, 너'의 선행사는 문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맥락 속의 '무엇'(화자, 청자)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ㄷ)에서 '서포'는 선행하는 명사 '김만중'을 대신한다. 그리고 (1ㄱ)에서 '그'는 선행사 '혁이'를 가리킨다. (1ㄴ)에서 '나, 너'는 대화의 주체인 '화자, 청자'를 가리킨다. (1ㄷ)에서 '서포'는 '김만중'을 가리킨다. (1ㄷ)의 '서포'를 대명사로 분류하지 않는 사실에서 대명사에 대한 위의 정의만으로는 대명사를 온전하게 정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검토할 사항을 대명사로 분류된 어휘에 관한 것이다.

아래 (2)는 국립국어연구원(2004)의 대명사 편을 발췌하여 용례집에서 설명한 대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5] 대명사로 분류된 어휘 가운데에는 하나의 표제어가 여러 인칭에 사용되는 어휘,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단어인가가 의심스러운 형태 등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국어사전에는 (2)에 제시되어 있는 대명사보다 훨씬 많은 대명사들이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국립국어연구원(2004) 「주요 어휘 용례집」에 제시된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필요에 따라 사전에 등재된 대명사 어휘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표제어가 여러 인칭으로 통용되는 경우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2) ㄱ. 나, 우리, 저, 저희; 과인, 본인, 소녀, 소생, 소인, 쇤네, *이넌*, ***이놈,*** 이쪽,
ㄴ. 너, 너희, 당신, 자네, 그대; 귀관, 귀하, 그쪽, 네놈, 댁, 여러분, *이넌* , 요년, 요놈, 이녁, ***이놈,*** 이이, 임자, 제군, 형씨
ㄷ. 이, 그, 저, 그녀, 이네, 그네, 저네, 저희: 그것, 그년, 그놈, 그분, 그이, 그자, 그쪽, 그치, 요것, *이넌*, 요년, 요놈, 이것, ***이놈,*** 이분, 이이, 이자, 이쪽, 이치, 저것, 저년, 저놈, 저분 저이, 저자, 저쪽, 저치
ㄹ. 거기, 여기, 저기: 그곳, 그쪽, 요쪽, 이곳, 이쪽, 저곳, 저쪽 / 그, 이, 저: 그것, 그따위, 요따위, 이것, ***이놈***, 이따위, 저것, 저따위
ㅁ. 누구, 아무, 아무개
ㅂ. 무엇, 어디, 언제

대명사의 정의와 그 어휘에 관한 문제는 대명사의 체계로까지 이어진다. 대명사 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칭만으로 대명사를 구분한 이익섭・임홍빈(1983), 서정수(1996), 이익섭・채완(1999)과 사람과 사물로 구분한 최현배(1972), 인칭과 비인칭으로 구분한 김정아(1984), 이석주・이주행(1994), 김미형(1990,1997), 이관규(2003), 인칭과 지시로 구분한 나찬연(2007), 고영근・구본관(2008), 김태자(2008), 남기심・고영근(2011)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함.)

전술한 각각의 체계 안에서도 용어 ‘인칭, 비인칭’에 대한 해석, 3인칭 대명사 인정 여부, 미지칭・부정칭・재귀칭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대명사 분류 및 그 하위 분류가 다양한 현실이다.

2. 대명사의 특성

대명사의 특성을 형태, 통사, 의미 면에서 검토해 보자.

2.1. 대명사의 형태적 특성

기존 연구의 정의들을 보면 대명사의 유개념은 '말, 단어, 체언' 등인바, 이는 대명사가 단어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3) ㄱ.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ㄷ. 저것 좀 봐.

그런데 (3)의 '이분, 그쪽, 저것'이 단어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형태와 의미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형태론적 검토로서, '이, 그, 저'와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단어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6] 단어는 구에 비해 분리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어 '작은 집'과 '작은집'의 경우는 분리가능성으로 보면 구와 단어가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이 분' 과 '이분'의 경우, '이 착한 분'을 상정하여 분리가능성을 생각하면 구와 단어의 구별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의미론적 검토로서, '이분, 그쪽, 저것'이 '이 분, 그 쪽, 저 것'과 의

6) 김수정 · 서종학(2012)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어 교사들, 언중들에 의해 '이 사람'과 '이분'의 띄어쓰기에 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굳어져 쓰임에 따라 합성어로 인정된 단어들로, 어떤 문맥에서든지 '이것, 그것, 저것, 이분, 저분, 그분'을 붙여 쓴다."라고 답하고 있다. '것'과 '분'은 의존명사로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존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주로 관형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러한 형태로 굳어져 쓰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미상 변별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 집’과 ‘작은집’의 경우는 의미 변화 면에서 보면 구와 단어로 확연하게 구별된다. 반면에 ‘이 분’과 ‘이분’의 경우,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와 단어의 구별이 어렵다. 김상대(2001)에서 ‘의미의 관용화’를 들어 ‘이분, 이때, 이쪽, 이놈…’ 등을 복합어로 보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남기심 · 고영근(2011)에서 상대어 유무에 따라 구와 복합어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상대어 ‘*헌해, *헌마을’이 없는 ‘새해, 새마을’을 복합어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이분, 그쪽, 저것’의 경우에는 상대어 ‘그분, 저쪽, 이것’이 있음으로 보면 이를 복합어로 보기 어려워진다.[7]

2.2. 대용성과 통사적 특성

대명사의 속성 중 하나로 꼽히는 ‘대용’(substitution)을 바라보는 시각이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달라 보인다. 이는 ‘대용’을 ‘조응’(anaphora)이나 ‘지시’(reference)와 구별하지 않거나 혼동함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4) ㄱ. 혁이가 제대하고 학교로 복학했다. 그가 돌아오자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ㄴ. 내가 할게. 너는 쉬도록 해.
ㄷ. 나는 (우리) 그이를 믿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4ㄱ)의 ‘그’는 선행어 ‘혁이’를 대신한 것이므로 이를 대용이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에 비해 (4ㄴ)의 ‘나, 너’는 문장 상에서 선행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대용의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윤유열(1992), 김미형

7) 또한 ‘이 사람’의 경우는 구로 보고, ‘이분’은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1997), 정희정(2006), 나찬연(2007) 등) 그러나 '대용'은 '언어 형식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라 보고 선행어가 문장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상념의 영역에서 그 지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대용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양명희(1998), 김광희(2011)) 전자(4ㄱ)를 명시적 대용이라 하고 후자(5ㄴ)를 맥락적 대용이라 하자.[8] (4ㄴ)과 같이 1·2인칭의 경우는 맥락적 대용이 일반적이고 (4ㄱ)과 같은 3인칭의 경우는 명시적 대용이 일반적이라 하지만 (4ㄷ)을 보면 3인칭의 경우도 맥락적 대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대명사의 대용성은 문맥이나 화맥에 선행어가 노출된 경우, 또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공유된 상념 속에서 그 지시 대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경우에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거 외에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성에 근거해 대명사 어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5) ㄱ. 대부분이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 조성되거나 파생되는 일이 거의 없다.
ㄴ. 호격형태에 놓이지 못한다.
ㄷ. 기능에는 명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선행하는 관형어와의 구성에 제약을 더 받는다.
ㄹ. 명사에 발견되지 않는 형태 및 기능상의 특수성, 즉 경칭과 겸양칭이 평칭과 구별되어 있다.

---

8) 김광희(2011)에서는 '대용(substitution)'을 가장 상위의 범주로 보고, 문장에 명시적 선행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행사와 대명사의 결속관계를 '조응(anaphora)'으로 분류하고 이를 대용의 하위 범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간적 상황과 시간적 상황의 정보를 통해 해석될 수 경우를 '화시(deixis)'로 분류하여 이 역시 대용 범주 가운데 일부로 보고 있다.

(5ㄱ-ㄴ)은 손문경(1992)에서 발췌한 것이고, (5ㄷ-ㄹ)은 고성환 외(2005), 나찬연(2007)에서 발췌한 것이다. (5ㄱ)에 의지한다면 '이분, 그쪽, 저것'은 대명사로 보기 어렵다.[9] 본고에서는 관형사 '이, 그, 저'와 의존명사 '것, 년, 곳, 놈, 따위, 분, 이, 자, 쪽, 치, 녁(녘), 편'이 결합한 구성들은 하나의 단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대명사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다.[10]

(5ㄴ)에서 '*나야, *너야'란 호격 구성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고, (5ㄷ)에 따르면 '{이, 그, 저} 학교'와 '{이, *그, *저} 나'의 구성에 제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ㄹ)에 의지하면 대명사 '나'의 겸양칭 '저'가 확인되고, '너'의 경칭 '당신'이 확인된다.

여기에 덧붙여 대명사로 분류되어 있는 '형씨, 임자, 제군' 등에 대해서 검토하자.

(6) ㄱ. 형씨, 다람쥐 섬으로 가려면 이리 내려가는 게 맞지요?
ㄴ. 제군, 나는 오늘 먼저 제군들에게 매우 쓸쓸한 소식 하나를 전하겠다.
ㄷ. 언니, 오늘 시간 어때?

대명사의 평칭은 경칭, 겸양칭과 구별된다든가 호격형태에 놓이지 못한다는 점으로 보면 이들은 대명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9) 김일웅(1982)에서는 국어는 영어와 달리 3인칭대명사의 형태가 따로 없고 '지시사+의존명사' 형식이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시사는 화자, 청자, 대상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의존명사가 대상의 형식 부류를 대용하는 것이다. 즉 의존명사가 대용성을 갖는 것이다.

10) '이자(者)'와 '이분'의 경우, 접미사 '-자'(과학자/교육자) 또는 '-분'(친구분/남편분)이 사전에 제시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관형사 '이, 그, 저' 뒤에 붙는 '이 자, 그 자, 저 자'의 경우와는 다른 기능이다. 또한 '-분'의 경우도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정의하고 있는 항목이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사람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는다."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형사 뒤에 붙는 '이 분, 그 분, 저 분'의 '분'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있다. ‘오빠, 언니, 아저씨’와 같이 이들 단어도 호격형태에 놓이기 때문이고 또 이들 단어의 경칭이나 겸양칭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11]

2.3. 화시성

‘지시’(reference)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명사를 논할 때의 ‘지시’는 지시 대상이 특정한 개체인 한정적 표현을 뜻한다.

(7) ㄱ.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다.
ㄴ. 혁이가 온다.
ㄷ. 너는 성실한 학생이다.

한정적 표현의 지시는 (7ㄱ-ㄷ)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한정적 명사구, 고유명사, 대명사로 실현된다. 이렇게 볼 때, (7ㄷ)의 대명사는 (7ㄱ-ㄴ)의 한정적 명사구나 고유명사와 구별되지 않는다. 대명사가 이들과 구별되는 것은 ‘지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8) ㄱ. 혁이가 할게.
ㄴ. 혁이가 해 봐.
ㄷ. 혁이가 알아서 하겠지.
(9) ㄱ. 내가 할게.
ㄴ. 네가 해 봐.
ㄷ. 그가 알아서 하겠지.

고유명사를 사용한 (8ㄱ)의 ‘혁이’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킬 때

11) 사전에 제시된 단어 가운데 같은 표제어가 ‘대명사’와 ‘명사’로 품사가 통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이 경우 대명사와 명사 예시 어휘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한 의미 아래 ‘…라고 이르는 말’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대명사, ‘…라고 부르는 말’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명사로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예이고, (8ㄴ)의 '혁이'는 화자가 청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것이며, (8ㄷ)의 '혁이'는 화자가 제3자를 지시할 때 사용한 것이다. (9ㄱ-ㄷ)은 (8)과 달리 화자가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가 달라진다. (8)과 (9)의 차이는 '화시성'에 있다. 즉, '화시'는 담화의 시간과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 청자, 발화 위치 등에 따라 어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명사 속성으로서의 '지시'는 'reference'가 아닌 'deixis'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화시성'을 기준에 두었을 때, 문제가 되는 단어 중 하나는 '본인'이다. 정희정(2006)에서는 '본인'을 예로 들어 '본인'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 그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의해서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대명사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 ㄱ. 본인이 하겠습니다.
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ㄷ.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10)의 '본인'도 (8)의 '혁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지시성은 있으나 화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과 같은 단어들은 대명사로 분류하지 않고 명사로 분류하기로 한다.[12] '본인'은 발화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누구이든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나 청자, 제3자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나'를 청자에게 사용할 수 없고, '너'를 화자가 사용할 수 없는 데 반해, '본인'은 화자, 청자, 제3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12) '오늘, 지금, 올해, 어제'와 같은 단어들이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대명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한정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은 화시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 (9)의 ‘나, 너, 그’에 비해 (8)의 ‘혁이’나 (10)의 ‘본인’은 인칭에 관계없이 형태가 같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대명사는 ‘화시성’을 주요 속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어가 가진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발화 위치 등에 의해 지시하는 대상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2.4. ‘상호적 화시성’과 ‘범용성’

다음의 예를 보자.

(11) ㄱ. 과인이 알아보겠소.
ㄴ. 귀관이 알아보시오.

(11)의 ‘과인’과 ‘귀관’은 많은 문법서에서 대명사로 분류되어 있다. ‘과인, 귀관’이 전술한 대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1인칭 대명사 ‘나’에 대응하는 2인칭 대명사 ‘너’가 있음에 비해, 1인칭 ‘과인’에 대해 2인칭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임금이 화자인 경우 ‘과인’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금이 청자인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없다. (11ㄴ) ‘귀관’의 경우도 그러하다. 청자인 ‘귀관’이 화자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응 형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상호적 화시성’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11)과 같이 1인칭 또는 2인칭 대명사로 분류되었으나, 이러한 ‘상호적 화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명사로 분류할 수 없는 단어들은 (12)와 같다.

(12) ㄱ. 짐(鴆), 고과(孤寡), 소비(小妃), 소인(小人), 소승(小僧), 소사(小士), 시생(侍生), 소제(小弟), 첩(妾), 소녀(小女), 소매(小妹), 쇤네 ……
ㄴ. 제군(諸君), 귀승(貴僧) ……

대명사의 특징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범용성'이다. 대명사 '나, 저; 너, 당신' 등은 누구든 누구한테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인, 귀관'은 누구나 누구한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기심 · 고영근(2011)에서 '너'와는 달리 '서포'가 대명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두루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3. 대명사 체계

지금까지 논의한 대명사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과 대명사의 속성을 토대로 대명사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한다. 앞에서 제시한 국립국어연구원(2004)의 대명사 편을 다시 인용하자.

(13) ㄱ. 나, 우리, 저, 저희; 과인, 본인, 소녀, 소생, 소인, 쇤네, *이년*, ***이놈,*** 이쪽,
ㄴ. 너, 너희, 당신, 자네, 그대; 귀관, 귀하, 그쪽, 네놈, 댁, 여러분, *이년* , 요년, 요놈, 이녁, ***이놈,*** 이이, 임자, 제군, 형씨
ㄷ. 이, 그, 저, 그녀, 이네, 그네, 저네, 저희: 그것, 그년, 그놈, 그분, 그이, 그자, 그쪽, 그치, 요것, *이년,* 요년, 요놈, 이것, ***이놈,*** 이분, 이이, 이자, 이쪽, 이치, 저것, 저년, 저놈, 저분 저이, 저자, 저쪽, 저치
ㄹ. 거기, 여기, 저기: 그곳, 그쪽, 요쪽, 이곳, 이쪽, 저곳, 저쪽 / 그, 이, 저: 그것, 그따위, 요따위, 이것, ***이놈***, 이따위, 저것, 저따위

ㅁ. 누구, 아무, 아무개
ㅂ. 무엇, 어디, 언제

(13)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놈' 등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1·2·3인칭과 지시 대명사에 두루 사용된다는 점인데, 이런 형태의 단어가 대명사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대명사에서 제외하려 한다. 앞에서 논의한 '본인', '혁이' 등과 관련하여 범주를 넘나드는 어휘는 대명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나의 단어로 보기 힘든 구성도 대명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둘째, (13ㅁ)의 '누구, 아무, 아무개'를 인칭 대명사로 분류하였을 뿐 1·2·3인칭 어디에도 소속시키지 않고 있다. 셋째, (13ㅂ)의 '무엇, 무어, 뭐, 어디, 언제'를 지시 대명사로 분류한 점이다. 본고에서는 (13ㅁ-ㅂ)의 예들을 대명사로 보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명사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특성 외에는 대명사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맥락적 대용이나 명시적 대용, 화시성이 나타나지 않고, 상호적 화시성도 없다. 또한 대응이 되는 경칭이나 겸양칭도 없다.

넷째, 대명사를 1·2·3인칭 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분류한 것인데, '인칭'과 '지시'를 대립시킨 것이 타당한가를 논의해야 한다.[13] 대명사 분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므로 기존의 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명사 체계는 크게 셋으로 정리될 듯하다.

(14) ㄱ. 1인칭, 2인칭, 3인칭, 재귀칭
ㄴ. 1인칭, 2인칭, 3인칭

13) 국립국어연구원(2004)에서는 대명사를 인칭과 지시로 나누어 대명사 어휘를 담화 상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2004)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국어에서 대명사는 문법적 기능에 의해 대명사를 분류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해석되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ㄷ. 1인칭, 2인칭

(15) ㄱ. 일반 대명사(인칭, 비인칭), 특수대명사(재귀대명사)
ㄴ. 인칭, 비인칭(재귀칭, 부정칭)
ㄷ. 인칭(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비인칭(사물, 공간, 시간)
ㄹ. 지시대상(인칭, 비인칭), 명확성(정칭, 부정칭, 미지칭, 재귀칭)

(16) ㄱ. 인칭(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지시(사물, 처소, (시간))
ㄴ. 인칭(1인칭, 2인칭, 3인칭(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지시(사물, 처소, (시간))

첫째는 (14)에서처럼 대명사를 인칭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익섭・임홍빈(1983), 이익섭・채완(1999), 김상대(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익섭・임홍빈(1983)은 (14ㄱ)에서와 같이 1, 2, 3인칭과 재귀칭으로 대명사를 분류하였고, 이익섭・채완(1999)은 (14ㄴ)과 같이 1, 2, 3인칭으로 분류하고 3인칭을 다시 인물, 사물, 처소로 나누었다. 김상대(2001)는 (14ㄷ)과 같이 일인칭과 이인칭만 대명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4]

두 번째는 대명사를 인칭과 비인칭으로 구분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석주・이주행(1994), 김미형(1990,1997), 이관규(2003), 정희정(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석주・이주행(1994)은 (15ㄱ)과 같이 인칭과 비인칭으로 구분하기에 앞서 일반 대명사와 특수 대명사로 분류하여 일반 대명사를 인칭과 비인칭으로, 특수 대명사를 재귀대명사로 분류하고 있다.[15] 김미형(1990,1997)은 (15ㄴ)과 같이 역

14) 국어에서 삼인칭 대명사는 형태론적으로 대명사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명사와의 구분 또한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15) 서정수(1996)에서는 대명사의 갈래를 정칭, 재귀, 부정칭, 의문으로 보고, 정칭을 1,2,3인칭으로, 재귀칭을 각 인칭으로, 부정칭과 의문칭은 각각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할 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대명사를 분류하였으며, 비인칭으로 재귀칭과 부정칭을 들고 있다. 이관규(2003)는 (15ㄷ)과 같이 지시 대상을 중심으로 인칭과 비인칭으로 분류하여 비인칭을 사물, 공간, 시간으로 나누었다. 정희정(2006)은 (15ㄹ)에서와 같이 지시하는 종류에 따라 인칭과 비인칭으로, 지시 대상의 명확성에 따라 정칭, 부정칭, 미지칭, 재귀칭으로 나누었다.

세 번째는 대명사를 인칭과 지시로 구분한 것인데 여기에는 나찬연(2007), 고영근·구본관(2008), 김태자(2008), 남기심·고영근(2011) 등을 들 수 있다. 나찬연(2007)은 (15ㄱ)과 같이 지시대상을 중심으로 대명사를 분류하여 인칭을 1, 2,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으로, 지시를 사물, 처소로 나누었다. 최현배(1972)에서도 용어는 다르지만 지시대상을 기준으로 사람과 '몬'으로 대명사를 분류하여 사람 대명사를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고 여기에 통칭을 추가하였다.[16] 고영근·구본관(2008)[17], 김태자(2008)[18], 남기심·고영근(2011)[19] 역시 지시대상을 중심으로 인칭과 지시로 분류하였는데, (16ㄱ)과 달리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을 3인칭의 하위 범주로 두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명사 분류 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칭'에 대한 의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인칭'이란 본래

---

16) 통칭으로 분류된 대명사는 '자기, 당신, 다른분, 다른이, 저, 남' 등이다. 3인칭을 '잡힘'과 '안잡힘'으로 분류하여 미지칭과 부정칭에 해당하는 '누구, 아무, 어느분, 어떤분…' 등은 3인칭 '안잡힘'에서 다루고 있다.

17) 고영근·구본관(2008)은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을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수한 예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18) 김태자(2008)는 3인칭을 다시 인지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시 대명사는 인지칭, 미지칭, 부정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지칭(認知稱)'은 근칭, 중칭, 원칭의 명칭 관련된 것으로 '이분, 저분, 그분, 이, 그, 저, 이것, 저것, 그것…' 등이 해당된다.

19) 남기심·고영근(2011)은 3인칭 안에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을 다루고 있다.

라틴어 ‘persona’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그리스어 ‘dramatic character’ 또는 ‘role’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20] 즉, 인칭이란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속에서 각 참여자가 갖는 역할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인칭’을 역할의 의미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대명사를 분류하기로 한다. 제1인칭은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제2인칭은 ‘말을 나누는 상대방’ 즉 말을 듣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1인칭과 2인칭은 담화에 직접 참여하여 서로에게 상대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3인칭은 담화 속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담화 구조 밖에 존재하면서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담화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 혹은 사물을 가리킨다.[21]

<표 1> 대명사 분류 체계

대명사		어휘
1인칭		저, 저희, 나, 우리
2인칭		너, 너희, 자네, 당신
3인칭	사람	그, 그녀, 이네, 그네, 저네,
	사물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

20) ‘persona’의 유래에 관해서는 Lyons(1977)에서 다루고 있으며, 김미형(1990), 김상대(2001)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21) 이익섭 · 채완(1999)에서도 국어의 대명사를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고 3인칭 대명사를 인물대명사, 사물대명사, 처소대명사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영어에서 ‘it, they’와 같은 사물대명사를 3인칭 대명사에 소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4. 결론

대명사는 9품사 체계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명사에 견주어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본고에서는 대명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자들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정리하여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대명사의 개념과 속성, 체계를 재정립해 보았다.

우선 기존의 대명사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대명사는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 명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주어진 대상을 언급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의들은 대명사의 개별 어휘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 제안하는 대명사의 개념은 '주어진 대상을 언급하기 위하여 명사 또는 명사가 쓰일 자리를 대신하여 쓰이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은 토대로 대명사의 속성을 세 가지로 제안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대용성'으로 문맥이나 화맥에 선행어가 노출된 경우, 또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공유된 상념 속에서 그 지시 대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경우에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화시성'은 전형적인 발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발화 위치에 의해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대상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대명사는 '나'에 대응하는 '너'가 존재하는 '상호적 화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수 계층의 일부 사람 혹은 사물에만 이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발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범용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명사의 속성을 띠지 못하는 단어들을 과감히 대명사에서 제외하였다.

또 '인칭'을 기준으로 1인칭과 2인칭, 3인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인칭은 담화상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화자는 1인칭,

청자는 2인칭, 화자와 청자를 제외하고 담화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물은 3인칭으로 분류하였다. 소위 재귀대명사 '당신, 자기'의 경우는 본고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 안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대명사는 '화시성을 지닌 특정한 대상이나 그 이름을 대신하여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성환 외,『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고영근・구본관,『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국립국어연구원,『주요 어휘 용례집 - 부사・관형사・대명사・수사・감탄사・의존명사편 -』, 국립국어연구원, 2004.
김공칠,『일본어학개론』, 시사일본어사, 1994.
김광희,「대용표현」,『국어학』 60, 국어학회, 2011, pp. 360-388.
김미형,「국어 대명사의 발달과 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김미형,「한국어 대명사의 특성 - 범주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97, pp. 25-52.
김민수 외,『歷代韓國文法大系』, 탑출판사, 1986.
김동찬,『조선어실용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2002.
김상대,『국어 문법의 대안적 접근』, 국학자료원, 2001.
김수정・서종학,「중등교과서의 대명사 관련 교육내용 분석 연구」,『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pp. 127-160.
김일웅,「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김태자,「대명사에서 '인지칭(認知稱)'의 설정에 대해」,『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2008, pp. 257-282.
김정아, 「15세기 국어의 대명사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제62호, 국어연구회, 1984.
나찬연, 『국어 문법의 이해』, 제이앤씨, 2007.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제3판』, 탑출판사, 2011.
박덕유, 『학교 문법론의 이해』, 역락, 2009.
박영환, 「한국어 지시어 교육 연구」, 『언어연구』 23, 한국현대언어학회, 2007, pp. 357-372.
박진호,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2007, pp. 115-14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2002.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성광수, 「국어 대명사에 대하여」, 『어문논집』 16, 민족어문학회, 1975, pp. 101-118.
손문경, 『조선어 문법』, 도서출판 솔터, 1992.
송재영, 「영어와 한국어 지시어의 용법 차이 연구」, 『언어과학』 18, 한국언어과학회, 2011, pp. 91-108.
쉬앤 떠우, 『중국에서의 조선어 기초어법』, 서우얼출판사, 2006.
신승용, 『(국어사와 함께 보는) 학교문법 산책』, 태학사, 2011.
신지연, 「국어 대명사의 품사론」,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2008, pp. 33-56.
양명희,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왕문용 · 민현식,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1993.
윤우열, 「우리말의 지시어와 3인칭」, 『애산학보』 13, 애산학회, 1992, pp. 157-188.
이관규, 『학교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2003.
이석주 · 이주행,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이은영, 「한국어 대용어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익섭 · 임홍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이익섭 ·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999.

이정택, 「우리말 체언의 품사 설정과 하위분류」,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2006, pp. 233-252.
이화영, 『(最新)中國語 文法』, 지영사, 1997.
임지룡 외, 『문법 교육론』, 역락, 2010.
장경희, 「국어 지시 표현의 유형과 성능」, 『한국어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2004, pp. 51-70.
정희자, 「직시와 언어 심리」, 『언어과학』 4, 한국언어과학회, 1997, pp. 329-356.
정희정, 「대명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 30-57.
최전승 외,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2008.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72.
최호철, 「국어 대명사 연구 - 1970년대 이전을 대상으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5, pp. 59-119.
Bhat, D.N.S., *Pronou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Bühler, K., Kainz, F.,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1934). New York : G. Fischer, 1982.
Lyons, J.,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Lyons, J.,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Hornby, A.S.,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Thompson, D. et al.,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A Reconsideration on the Systematization of Korean Pronoun

Suh, Jong-Hak · Kim, Su-Jeong

We reconsidered the property and system of pronoun after analyzing and examining various studies on pronoun.

Above all, on the basis of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pronoun, the property of pronoun can be proposed three different fields. The first thing, '대용성'(Substitution) means something that replaces noun whether or not there is an exposure of the antecedent in the context or conversation when speaker and listener can understand the referent in a shared thought. Second, '화시성'(Deixis) means a change of the re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y speaker, listener, and speech position in a typical speech condition. In connection with '화시성'(Deixis), pronoun has a property called '상호적 화시성'(Reciprocal Deixis). There exists '너'(You) which correspond to '나'(I). Third, pronoun has a property of '범용성'(Generality). This means that pronoun is used at most of the objects in a typical speech condition, not just some people or things of special class. Cautiously, the words that do not have these characters of pronoun and the vocabularies that are improper morphologically and syntactically are excluded from pronoun.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classification or system of pronoun, '인칭'(Person) stands for the role in a discourse. We considered speaker as a first person, listener as a second person, man and thing except for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in a discourse as a third person. Therefore, pronoun is systematized as first person, second person and third person.

To sum up, pronoun refers to 'the word which indicates the object directly in place of the name or the special subject that has the deixis'.

Key words : pronoun, substitution, deixis, reciprocal deixis, generality, the system of pronoun

서종학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10-9812-1122
전자우편: jhsuh@yu.ac.kr

김수정
소속: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11-9353-3479
전자우편: ksj9679@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